

제18222호 2판  
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  
정재부 2200-616 <팩스 227-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1 BOX OFFICE

**영화** (단위: 편)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미인도	48만7천326	59만7천393
2	007 쿼텟 오브 솔라스	39만115	151만6천840
3	서양 골동 양과자집 엔틱	33만2천751	48만9천804
4	이내가 결혼했다	8만5천521	166만6천830
5	뱅크잡	5만4천550	49만7천949
6	이글 아이	3만1천955	225만9천314
7	플러미 미 투 더 문	2만2천517	14만8천178
8	맘미아!	1만6천967	444만9천928
9	렛 미인	1만7천352	2만414
10	와인 미라클	1만3천604	2만3천54

(자료제공: 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나는 내운명	KBS1	30.8
2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6.4
3	예전의 동쪽	MBC	23.7
4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2.3
5	베토벤 바이러스	MBC	20.3
6	우리의 성	SBS	18.7
7	황금어장	MBC	18.3
8	개그콘서트	KBS2	18.0
9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17.4
10	해피투게더	KBS2	17.3

(자료제공: 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강철중: 공공의 적 1-1	액션
2	현곡	액션
3	인디애나존스: 크리스탈헤글의 왕국	액션
4	윌리드	액션
5	테이큰	액션
6	이이언맨	SF
7	남의 먼곳에	드라마
8	눈에는 눈이에는 이	액션
9	노크 : 낯선 자들의 방문	공포
10	월-E	애니메이션

(자료제공: 오피트 버금)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붉은 노을	빅뱅
2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3	레이니즘	비
4	노바디	원더걸스
5	러브 스토리	비
6	미시 스타일	브라운아이즈걸스
7	어쩌다	브라운아이즈걸스
8	주문-MIROTIC	동방신기
9	미쳤어	손담비
10	1분 1초	에픽하이

(자료제공: 멜론)

## ‘발라드 언니들’의 귀환 특별한 감성에 빠져봐

백지영·박정현·화요비 등 새로운 매력으로 유혹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 10대 소녀들이 주름잡던 가요계에 발라드로 무장한 ‘언니 가수’들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백지영, 이수영에 이어 이소라, 화요비, 박정현 등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컴백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사랑안해’ ‘사랑하니까 왜’를 잇달아 히트시킨 백지영은 지난 15일 7집 타이틀곡 ‘총맞은 것처럼’으로 컴백, 현재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발라드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싸이월드, 뮤즈,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멜론, 도시락, 엠넷닷컴 등에서도 빅뱅과 ‘정상’을 다투고 있다.

백지영과 나란히 컴백한 이수영은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차분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발라드 여왕에서 진한 눈화장과 도도한 눈빛, 도발적 포즈 등 팜프파탈의 모습을 선보인 것. 또 타이틀곡 ‘이런 여자’ 뮤직비디오의 단독 주연을 맡아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현재 이수영은 지상파 3사 가요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여자’의 컴백 신고식을 모두 마쳤다.

‘특별한 감성’으로 음악팬들의 가슴을 적셔온 가수 이소라도 빠르면 오는 12월 7집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 컴백 시기가 늦춰지지만 없다는 지난 2004년 발매한 6집 ‘눈썹달’ 이후 4년 만의 복귀다.

이번 7집 앨범 역시 지난 6집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소라가 직접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많은 베테랑 가수들이 작업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음악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몸무게 20kg 감량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던 이소라는 2년 만에 라디오 DJ로 복귀, 지난 4월부터 MBC FM 4U ‘오후의 발견’의 진행을 맡고 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에서 플라이트디스카이 환희와 가상 부부로 출연하고 있는 화요비는 오는 12월 음반 발매를 목표로 현재 음반 작업 중이다.

화요비 측에 따르면 새 음반 녹음을 위한 곡도 다 받아놓은 상태. 화요비는 ‘우결’ 촬영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음반 녹음 작업에 쏟아부으며 가수 복귀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도 할 예정이다.

얼마전 중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 최고의 힙합 뮤지션 중 한 명인 와이클리프 진과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된 박정현은 ‘우결’로 인기몰이 중인 래퍼 크라운제이와 호흡을 맞췄다.

작곡가 조영수의 올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이들은 따뜻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No Break’를 지난 21일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선보였다. 현재 박정현은 2009년 초 발매를 목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집 음반 작업에 한창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아티스트 편에 서서 음악 향기 퍼뜨릴게요”

**‘페퍼민트’ MC 이하나**

“확장시절부터 제게는 꿈의 무대였는데 MC를 맡게 됐어요. 너무 좋지만 잘하려면 기쁨은 조금 미뤄줘야죠.”

‘윤도현의 러브레터’ 후속으로 21일부터 방송된 KBS 2TV ‘이하나의 페퍼민트’의 MC를 맡은 이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한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믿고 맡겨주신 만큼 잘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영심, 이문세, 이소라, 윤도현 등이 이어 온 KBS 심야 음악프로그램을 연기가 맡은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진행을 맡으셨던 분들을 보면 이 자리는 좋은 음악을 들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잘하지도 못하고 대중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도 없는데 선물을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아티스트의 장이었는데 연기가 진행을 맡아 변질되고 퇴색되면 어쩌하느냐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을 아티스트들의 편에 서서 소개하고 싶어요.”

‘먼지가 되어’의 작곡가인 이대현 씨의 딸인 이하나가 인터뷰 도중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초대하고 싶은 가수로는 그는 전임 MC인 윤도현을 꼽았고 이병우를 직접 초대했다.

가수 데뷔나 연기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은 진행과 음악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래도 하고 싶다”며 ‘이하나의 페퍼민트’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 제27회 CBS 성가대합창제

CBS 성가대합창제는 광주 CBS가 광복을 준비하며 다짐과 평화를 온누리에게 전하기 위해 매년 열광 성가대 합창을 준비해온 전통입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제의 감동과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08년 12월 1일(일) 오후 7시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광주CBS  
• 공연문의: 002)376-8500-1